

주간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07
July 2018
Vol.6 No7

- 워십투게더/ 목자아우팅
- 주안에만남
- 교육부 소식
- 목장 / 사역국 / 칼럼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온 몸 다해, 온 맘 다해’



채플대항 줄다리기, 선수들의 '처절함'은 아랑곳 없이 응원단의 표정은 즐겁기만 하다. <사진: 양영 기자>

■ 주안에놀러와(독립기념일 운동회)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 기념일, 주안에교회는 두 채플의 교우들이 모두 밸리채플에 모여서, 그동안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해 왔던 “주안에 놀러와” 한마당 잔치가 열렸다.

서로 쳐주기를 권하는 목사님의 말씀은 어느새 아련히 사라지고, 시합에 들어가자 승부욕이 발동, 경기는 뜨거움을 더해 갔다. 팽과리와 북 등 각종 응원도구를 동원한 양팀의 응원전은 월드컵 열기만큼이나 대단한 하루였다.

이미 예선전을 치르고 당일 아침 9시부터는 채플별 결승전이 진행되었는데, 65세이상과 이하로 나누어 두 게임을 치른 족구 시합에서는 접전 끝에 밸리채플이 모두 승리하였고, 이어 벌어진 미니축구에서는 두 게임 모두 MP채플이 1점차 박빙의 승리를 거두었다. ICY 농구 시합에서는 MP채플이 12:5 여유있게 승리하였지만, 이어 벌어진 장년부 농구는 밸리채플이 10:8 승리, 오전 시합 결과는 3:3 팽팽한 결과를 안고 점심식사 시간을 맞이했다.

각 목장별로 준비해온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점심시간에는, 꼭 자기가 소속된 목장이 아니

라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먼저 챙기면서 영과 육을 함께 채우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오후시합, 이제부터는 정말 더욱 흥미진진하고 열띤 경기 첫 번째는 박 터트리기. 여자 성도들로만 구성된 선수들은 신발을 벗어 던지기 시작, 있는 힘껏 얼마나 세계 던지는지 신발은 관중석까지 날아가기도 하였고, 신발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바람에 머리에 맞기도 하여 통증을 호소(?) 하는 해프닝도 있어 보는 이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4면에 계속)

| 오희경 · 이광영 기자 |

■ Worship Together



MP채플 워십투게더에 참석한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다.

주중 함께 모여 예배... 목장별 밤 늦도록 이야기 꽃



밸리채플 성도들이 예배 후 목장별로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 양영 기자>

산을 오르다 보면 가장 힘든 곳을 깔딱고개라고 했던가? 일주일중 가장 힘들다고 해서 미국사람들이 hump day라고 하는 지난 7월 11일, 밸리채플 수요영성집회에 평소보다 3배가량 많은 300여 성도님들이 모였다. 또 7월 13일 MP 채플에도 일주일 동안 일을 마치고 피곤할 법도 하지만 밸리채플과 비슷한 숫자의 성도님들로 하여금 예배당을 꽉 채우고 있었다.

최혜 담임목사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올해 표어가 '예배자'임을 강조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당을 채워 나가고 빈자리가 없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사도행전 26:15~18을 가지고 '정체성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놀라운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사환(휘페레테스)과 증인 삼으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주안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하였다.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서 목장별로 다과시간을 가졌는데, 브니엘에서 준비한 다과가 일찌감치 매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늦은 시간임에도 주일보다 훨씬 여유 있는 모습으로 많은 이야기 꽃을 피우며 10시가 넘어서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표정이 훨씬 여유롭고 밝아 보였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성도님들이 주중예배에 참석하시기 어려웠지만 역시 우리 주안에 성도님들의 하나님사랑은 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우리가 누구인가? 똑배기처럼 식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어떤 상황가운데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안에 성도님들 아닌가? 이제 주일예배처럼 주중예배에서도 끊임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므로, 뜨거운 여름 열기만큼이나 그 사랑이 차고 넘쳐, 앞으로 계속하여 주중예배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많이 받으실 것을 확신하고 권면 드린다. | 이광영 기자 |



■ 목자 Outing



2018년 상반기 사역을 마친 목자들이 그리피스파크에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 정인섭 기자>

주말 아침 모처럼 산행길... 단합과 새로운 사명감



지난 6월 30일 LA 그리피스파크에서 벨리채 플과 MP채플의 목장 리더들이 2018년 전반기를 마치며 한자리에 모여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 그동안의 목장 활동을 되돌아보아 평가하고 또한 후반기를 설계하며 친목과 휴식을 갖도록 목회부에서 준비하신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먼저 함께 모여 기도와 간단한 협의 후 전원이 하이킹을 하였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의 거리였는데 하이킹 도중 함께 걸으며 평

소 나누고 싶은 목장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환 하며 친교도 도모 하였습니다.

하이킹 후 바비큐를 곁들인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을 들고 오락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인 삼각 이어 달리기, 줄넘기, 길게 늘이기 등 가볍고 흥미로운 게임을 통하여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한없이 웃고 같은 팀을 응원하며 몸도 풀고 친교를 하였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최혁 담임목사님의 전반기 헌신에 대한 감사와 하반기 사명감당에 대한 격려와 당부의 말씀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나형철 기자 |

■ EM Camping

형제 자매 한자리... 별빛 아래 하나님 찬양

지난 7월13일 부터 14일까지 영어청년부가 연합으로 캠핑 아웃팅을 다녀왔습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함께 EM 공동체의 일원이 될 약 3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Pyramid Lake와 Castaic Lake에 다녀왔습니다.

무려 6개의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행 후에는 "새로운 형제 자매를 알게 되어서 좋았다", "섬김과 음식 등을 통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연합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 등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주고 받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뜻깊은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EM 공동체를 지켜봐주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눈여겨 보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 이성우 전도사 |



캠핑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레스토랑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회원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 숨은 일꾼/ 구용순 권사(벨리)

평생 예수님 섬김 본받아



어렸을적 할머니께서는 주민등록지문을 찍으시려고 동회에 갔다오시더니 엄지에 지문이 다 닳아없어져 한달동안 엄지 끝에 테이프를붙이고 일하시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주안

예교회에는 우리들의 어머니같은 구용순 권사님이 계신다.

운전대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봐올 때가있다. 권사님께서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팔십이 다되신 오늘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의 섬김을 닦아가려고 우리 모두는 애쓰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있다.

항상 앞치마 두르신 모습을 뵈고 토요일에는 아침식사 준비하시느라 5:30분이면 부엌 뒷문으로 오시며 또한 팜스프링 운전여행에서는 섬김을 받으셔야할 연세에 운전도 안하시며 섬겨주셨을뿐아니라 교회행사 때마다 봉어 빵을 얼마나 맛있게 구우시는지 권사님의 봉어고기가 내장도 많고 또 골고루 들어있다면 맛있다고 극찬을 해드리면서 우리는 작은 행복을 느낀다.

믿음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권사님! 부디 건강하셔서 많이 많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어머니같이 사랑하고 거두어주세요. 권사님 예수님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임용자 기자 |



김민재 전도사



오제니퍼 전도사



김혜연 간사

교회학교 학생들 크게 늘어 체제 보강

주안예교회 교육국에서는 그동안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EM 으로 구분하여 교회학교를 운영하여 왔는데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중고등부를 중등부와 고등부로 분리하여 지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등부 지도 전도사님도 새로 모시게 되었는데 벨리채플에는 오 제니퍼 전도사님, MP채플에는 김민재 전도사가 새로 부임하셨고 벨리채플 초등부에는 김혜연 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된 편성은 중등부는 6학년부부터 8학년 학생까지, 고등부는 9학년부부터 12학년 학생까지 속하게 됩니다. 학생들 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MP채플의 경우는 유초등부에서 20명이 중등부로 진급을 하였습니다.

한편 중등부는 7월 8일부터 유년부에서 진급한 학생들이 예배를 함께드리고 있고 고등부는 12학년 학생들이 8월 19일부터 EM 예배에 참여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상욱, 한수현 집사(MP) 박상욱 집사님과 수 한 집사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결혼한 작은 아들 내외에게 하나님께서 예쁜 손녀 딸 베델(Bethel)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집사님 내외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할게요.



즐거운 식탁... 환상적인 불꽃놀이

〈주안에놀러와 1면서 계속〉 여자피구와 ICY피구에서도 벨리채플이 승리하였고 MP채플은 양보(?)한 셈이 되었다. 이어서 특별 족구시합이 시작되었는데, 성도팀과 목회자팀의 시합으로 담임목사도 출전(?)하시어 두 게임을 하였는데, 서로 1게임 이기고 한 게임을 양보하였다. 특히 담임목사님께서 실수를 하거나 하면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목사님은 일일 웃음전도사로 봉사를 톡톡히 하신 하루가 되었다.

이어 벌어진 배드민턴에서는 모든 종목에서 벨

리채플이 우승하였고, 줄다리기에서는 MP채플이 남녀종목에서 그리고 벨리채플은 ICY에서 승리하였다. 탁구 남녀복식과 여자단식에서는 MP채플이 남자단식과 혼합복식에서는 벨리채플이 각각 승리하였다. 모든 스포츠순서가 끝난뒤에는 야외에있는 분수대 광장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양쪽채플 권사회에서 정성껏 마련해주신 갈비 바베큐와 닭튀김, 샐러드 등 7가지 이상의 메뉴로 푸짐한 저녁식사를 즐기면서, 감미로운 찬양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9시가 되면서 쏘아올리기 시작한 불꽃은 간절하게 타오르는 우리의 소망과 함께 어우러져서 더욱 크고 힘찬 불빛을 뿜어내는듯 보였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MP18목장 목장 가족들이 동반외출을 하였습니다. 부에나팍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 모여 스파게티도 먹고 떡볶기도 먹었습니다. 목장의 막내는 남선우, 지아나 집사님의 딸인 5살짜리 율이인데 이 날은 모두가 5살로 돌아가서 동심을 즐겼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배가시키고, 아픔과 슬픔은 반감시키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18목장은 주안에교회의 반석 목장입니다.

최종선 집사(벨리) “주안에놀러와” 행사가 끝난 후 목장그룸방에 올렸던 최종선 집사님의 말씀 한마디: “새 교회로 옮긴 후 헛헛한 마음을 어제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싹 잊었습니다.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열심히 놀아주신 목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영옥 권사(벨리) 오렌지장로교회에서 지난 토요일(7월 21일) 하프연주를 하셨습니다. 찬양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정경배 집사(벨리) 정경배 집사님 따남께서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새로운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 브니엘 카페

아름다운 섬김은 행복이다

주안에교회에는 아름다운 섬김을 받으며 또 섬기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다. 매주 맛있고 따끈따끈한 빵이 구워져 MP브니엘로부터 배달되면 벨리브니엘에서는 열심히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고 받고하면서 MP 브니엘의 너무 큰 사랑과 섬김에 어떻게 섬겨드릴까 고민하고 있을 때 MP브니엘에서 식혜를 만들어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50잔을 맛있게 만들어 보내드렸다.

또한 제빵크래스를 열어 빵만들기 수업시간까지 마련해주시니 감사하다는 말로도 부족할듯하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빵을 배우며 행복을 나누고 양쪽 교회를 섬기며 행복한 믿음생활을 할 때 내가 먼저 행복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배우기 바라며 벨리브니엘에서 섬기고자 하시는 분께는 아메리카노는 물론 라떼, 마끼야또, 카페모카 등 전문적인 커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칠 예정이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안에카페에 문을 노크해 주시기를 기다린다.

| 임용자 기자 |



■ EM Camping

'Lake Night'

The night air was a cool whisper, the sky a black velvet canvas speckled with stars. Before me were the smoldering remnants of a campfire and circles of people whose shouts and laughter would last well into the night. Though it certainly wasn't the same boisterous group and intensive scheduling you might see at any ICY retreat, the EM camping trip was still a time to be well-remembered.

The overnight trip took place at Pyramid Lake, a wide expanse of lake and campground nestled within the hills of Southern California. After carrying supplies and pitching tents in oppressive heat, EM members and members-to-be lounged about, huddling under the shade as Valley and MP folk mingled and chatted for the first time in what seemed a long time; pictures were taken, stories told, and playful squabbles ensued. Then, after a long day of scorching sunlight, night came as a soothing reprieve; a thick darkness blanketed the whole area, and our only sources of light were lanterns and a campfire. Trips to the bathroom were made en masse, people travelling in giggling herds. Much of the evening was spent talking over and consuming an impressive amount of food—everything from pork belly and



tacos to cream puffs and ice cream; at least one marshmallow was lost to the campfire. Graduating seniors discussed college plans and job prospects with elder members, while others cracked jokes and chased one another around the fire. Though several of our group wisely chose to turn in early, slipping into cars or cramming into tents, many others were belting out songs and exchanging stories till the wee hours of the night—some choosing to forego sleep entirely, and others sleeping outside, under the vast multitude of stars (atop some very comfortable(?) folding chairs).

The next morning, many were awoken by the severe heat, and it was not long before all were sweating profusely. Pastor Sam led a small devotional time before setting us to work, packing and cleaning the space. We then promptly departed, driving a ways to the nearby Castaic Lake to swim (the lake we were staying at was, unfortunately, algae-infested and thus unsuitable for swimming). Upon arrival,

several members almost immediately jumped into the lake, enjoying the relief from the heat. Others, however, required some slight...persuasion, and were very gently flung into the water, courtesy of Pastor Sam, Pastor Joseph, and several other members.

The trip came to a close at a nearby Chili's, where we shared one last giant meal together as a group before going our respective ways. Being able to come together as a ministry, to play, to tease one another, to throw each other into lakes and to gorge ourselves on an exorbitant amount of junk food has been such an enormous blessing for us. As both a ministry and a family we have grown tremendously, and we have high hopes for the future. We pray that our burgeoning group would continue to cultivate deeper relationships with God and each other and that we would continue to flourish in Christ. Thank you for your continual support and please continue praying for the InChrist English Ministry! **Kaitlin Yi**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기도해주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8월 3일 금요일부터 8월 6일 월요일까지 3박 4일동안 빅베어 지역에 있는 Forest Home, The Village에서 2018 여름 수양회를 갖게 됩니다. 학생 80명 지도자 12명이 참가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ICY에서는 이번 여름 수양회를 위하여

주제를 "Good Morning" 으로 정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교회 기도국에서는 수양회를 위한 기도팀을 준비하여 수양회 현장에 상주하며



기도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한 단계 성숙된 믿음생활을 하는 계기가 되고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흑백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시대에 “주말의 명화” 라는 프로를 통해서 한 영화를 시청했던 기억이 난다. 비록 제목까지는 기억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던 그 장면들 만큼은 아직도 생생히 떠오르곤 한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였다. 어느날 사관학교 강당에서 많은 장성들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한 흑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순서를 맞이하면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크나큰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는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그 목사님의 첫마디는 "나는 오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였다. 강당 안은 갑작스런 많은 사람들로 인해 술렁이기 시작했지만, 차분히 이어진 말씀의 내용은 이랬다. 어린아이가 잠자리에 들기전 잠투정을 하며 엄마의 방을 찾아가 칭얼 대다가 엄마의 품에서 굳히 잠들었

었는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분명히 엄마의 방에 있어야할 자신이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자고 일어났음을 알게 되고는, 자신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마땅히 자기가 있어야

최고의 보험

장남식 집사(MP)



할 곳에 안전하게 옮겨주신 엄마의 사랑을 깨달으며 자기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즉 엄마와 자신의 방을 하나님과 천국에 비유한 말씀이었는데, 간략하지만 근심과 우려를 잠재우게 하는 신선한 충격으로 전해졌고 특별히 새로이 임관된 장교들의 얼굴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얼굴빛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장면을 보고있던 때의 나는 아주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강한 소망을 품기 시작했고, 공교롭게도 젊은 시절부터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차례 어려운 고비를 경험하다보니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조금은 담대해진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

여기에서 진심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천국이란 곳에 확실한 보험을 들었다는 사실만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이기때, 현재에 주어진 나의 삶이 어렵고, 또한 건강에 어려움이 닦쳤을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그것마저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 놓는다면, 그 순간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한다는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싶고 또 전해주고 싶다. 최상의 보험처인 천국에 마음을 담보로 드린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아닐까?

우리 시어머니는 92세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다른 이북 출신 분들처럼 강한 생활력을 가지신 여장부이십니다. 자녀들을 엄격하게 교육하시고, 특히 신앙은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시댁과 남편이 기독교 집안이고 신앙심이 깊다는 것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했던 탓인지 결혼 생활 초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생활, 신앙을 우선시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많은 갈등과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하며 조금씩 남편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나도 모르게 서서히 시댁과 남편의 신앙을 닦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신앙과 믿음생활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신앙과 교육이 뿌리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유산

이계순 권사(MP)



시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지는 권유를 불편하다시며 마다하시고 노인 아파트에서 따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주 한두 번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청소와 빨래를 해드리고, 반찬이며 장보기 등을 도와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사를 할 때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단연코 우선 주제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입니다. 아니,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기도해서 응답 받은 일들, 주님이 한 주간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셨는지 등의 말씀입니다. 또 가족의 안부도 챙겨주십니다. 아뵘이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지, 멕시코 선교도 계속 다니는지, 건강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며 건강을 잘 챙기라고 하십니다. 또 손자녀들도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서는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는 지금도 주중예배, 주일예배는 물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가십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맥아더 공원과 근방의 지하철역 등에 나가서 전도도 하십니다.

제 남편과 저에게,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도 생명처럼 소중한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유산으로 남겨주신 시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일을 섭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우비즈니스 안내

SEONG UN JOE
VIIA TRAFFIC SCHOOL 비자운전학교
 213-739-8181
 vijasj@gmail.com
 4157 W. 5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 • 정원 공사
 나 형 철 Cell: 213.999.2967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Master Car Auto Body Shop
 Danny Lee (이원근) 5801 S. Central Ave #H
 Los Angeles, CA 90011
 wonkni@gmail.com
 (213) 703-0777
 보험수리, 리스리턴,
 렌트카, 토잉 서비스

주안에교회로 인도함 받은 섭리와 은혜 놀라워...

■ 주안에만남

40여 새가족들 설렘과 기대

7월 19일과 7월 22일, 벨리채플과 MP채플에서 '주안에 만남 3'이 있었다. 벨리채플에서는 9명의 새가족들이, MP채플에서는 30여명의 새가족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새식구 환영회를 준비한 새가족국 임원들의 손길이 자상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자리였다. 구절초와 과꽃이 한국의 가을을 연상하게 하는 센터포스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각처에서 모여 온 새 식구들의 교제가 풍성하다.

벨리채플에서는 고급 레스토랑 못지 않은 근사한 스테이크, MP채플에서는 치즈를 듬뿍 넣은 돈까스에 샐러드와 김치. 컵에 담겨진 여러가지 과일과 생크림 과자와 음료. 정성과 숨씨가 드러나는 상 차림과 맛도 뛰어나서 어떤 프로패셔널한 식당보다 질 좋은 초대연이었다.

사랑에서 주안에교회를 찾아 온 새가족들의 사연도 어찌면 그렇게 다양한지 하나도 같은 게 없다. 7, 8년 전에 CGN TV 방송으로 최혁 담임 목사님을 이미 만났던 사람들이 찾아 온 길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한국인이 없는 몬트레이파크나 몬테벨로에 사는 분들의 기도로 집 가까이에 한국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오셨던 분들도 주안에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였었다.

담임목사님의 자기 소개에 뒤이어 새가족분들의 자기 소개를 가지며, 자연스럽게 웃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가 이어졌다. 자기를 드러내며 마냥 즐겁게 웃어 가다가 최혁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되자 조용한 긴장 속에 집중하는 새가족들이었다.

최혁 목사님의 묵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리라 생각하며 계획 하셨다고 말씀을 시작하셨다.

잔잔한 감동과 깨달음이 카페를 가득 메우고 새가족들의 만남은 새로운 각오를 세워 나가며 주안에교회의 한 가족 되는 것이 기뻐, 웃음과 평안이 가득해 간다. 더 자주, 더 많은 새가족 만남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떠나는 식구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담백 담겨질 것을 기대한다.

| 이예스더 기자 |



강영일 집사



김정윤 성도



석광수 집사



민유선 집사/최호기 집사



이현희 집사/박인수 집사



문지애 집사



정크리스티나 성도



김영희C 권사



박동준 집사/이지혜 성도



김혜경E 집사/김방환 집사



최인호 집사/최주디 집사



황선아 성도/박찬경 성도



서먹했던 분위기 갈수록 평안함과 따뜻함 느껴



임은숙 집사



김지희B 집사



지바정숙 성도



김현정 집사



신지숙 집사



기영애 집사



이규진 성도/장혜정 집사



이승윤 안수집사/이봉례 집사



고소피아 성도



이정선 권사



박이안 집사



■ 새가족 글

"어둠 속에서 빛으로"

2017년 12월, 저는 15년 동안의 한국 교직생활을 잠깐 쉬고, 남편의 권유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저는 고등학교 연구부장으로 너무나 바쁘게 지내 왔고 잦은 출장과 야근으로 가족과 같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내 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힘들었습니다. 이번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이 서자, 준비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8년 3월 2일부터 낯선 LA 생활이 시작되었고, 다행히 몇 달 전에 남편이 미리 입국하여 집과 차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 둔 덕분에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이웃인 전기수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의 미숙한 요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을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 주시며 미국 생활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입학한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도와주시는 전담 튜터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레이스 장 집사님이십니다. 두 분 모두 주안에 교회의 성도님이셨고, 저희 가족은 자연스럽게 주안에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남편은 한 번도 같이 교회에 가본 적도 없었고, 일어서서 찬송가를 부른 적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아.. 하나님! 정말 제사장요.'라고 경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LA에 온지 5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힐링캠프, 주안에 말씀, 수요 영성 집회에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장혜정 집사(밸리) |

■ 사역국 탐방

하나님 임재 간절한 기도와 준비

예배국(MP)



예배부는 주일날과 금요일 두 번의 예배 때 모임을 갖는다. 주일날은 1부 예배 전인 9시에, 금요일 날은 영성 예배 전인 7시에 모인다. 모이면 먼저 그날의 Q Sheet(예배 순서지)를 검토를 한다. 예배의 순서와 참여자, 그리고 예배에 필요한 것들과 도움 일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누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토의하며 나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기도를 한다.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복을 받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간절하게 뜨겁게 한다.

기도가 끝나면 예배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고 모든 부원들이 예배당에 들어가 자리 정돈을 하며 청소를 한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께 성공적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고 구석구석 살핀다.

그리고 형제님들은 예배당 입구에서, 자매님들은 예배당 통로에서서 예배당에 들어서는 교우들에게 주보를 나누어 주며 인사를 하고 이들을 자리로 안내를 한다. 예배 시간에도 예배부의 사명은 계속된다. 예배당 뒤에 서서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목사님이나 교우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예배에 방해되는 일은 없는지를 살핀다. 예배가 끝나면 예배당 문을 열어 교우들이 예배당을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인사한다. 그리고 모두가 퇴장한 뒤 예배당을 돌아보며 뒷정리를 한다. | 조성운 기자 |

접시마다 사랑의 맛 듬뿍 담아



돌봄국(벨리)

매주 금요일, 새벽기도가 끝나면 부역으로 발걸음을 부지런히 옮기는 권사님들 다섯분이 계신다. 황영옥 권사를 국장으로 주안에 작은 밥상을 준비하시는 팀원들께서는 우선 기도로 시작하시고 간단한 빵 한쪽과 커피로 아침식사를 대신한 후 찬양을 부르시며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다. 찬양은 독창과 합창으로 자유롭게 내마음 가는대로 부르신다.

이번주 메뉴는 대추와 마늘을 울린 여름보양식 삼계탕, 오이소박이, 고추장아찌, 미역줄기볶음,김치 등 매주다른메뉴로 섬기고 계신데 대부분 환자분들의 음식이라서 영양식과 싱겁게 만드는 것은 꼭 지키신다.

며칠간 접수실음식이 컨테이너박스에 담겨져 아이스박스에 포장되어 냉장고에 옮겨지면 필요한 성도님들께 누구도 모르게 보내어지는데 심지어, 음식을만드신 권사님들도 누구에게 보내지는지 모르고 계신다. 특히 어머니들이 감기라도 한번 걸리면 누가 한끼라도 먹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희망사항인데 왼손이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하는 사역국이 바로 돌봄사역국이다. 돌봄의 본을 단단히 보여주는 사역국이다. 설겅이까지 다마치면 몹시 시장할 시간일텐데 교회의 일과 개인적인 일이 많으셔서 함께 점심을 못드시고 종종 걸음으로 부역을 떠나신다. 이렇게 맛있는 권사님들이 계신 주안예교회는 참 아름답고 복된 교회이다. | 임용자 기자 |

■ 알고 계셨나요? / Real ID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국내선 비행기를 타거나 연방 정부 관할 지역(군대, 연방정부 청사 등)을 방문할 때 운전 면허증이나 아이디 카드만 소지할 때는 반드시 Real ID를 사용하도록 2005년에 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거주에서는 2018년 초부터 운전면허증이나 아이디 카드를 처음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기존의 일반 면허증(이하 아이디 포함)이나 Real ID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일반 면허증과 Real ID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지금까지 일반 면허증은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이민자들이 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 여권에 적힌 자신의 법적인 이름 외에 영어 이름을 아무



런 증빙 서류 없이 첨가할 수가 있었다. 또 미국인들도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대신에 학생증 등을 사용하여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었다. 또 결혼 등으로 이름이 바뀐 경우에도 약식 증명서나 구두 진술만으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였다.

그러나 Real ID법이 시행되면 면허증은 법적인 공식 이름만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인인 경우는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이고,

외국인 이라면 미국에 입국할 때 사용한 여권에 기재된 이름이다. 만일 이 이름과 현재 사용 중인 면허증에 기재된 이름이 다르다면 Real ID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사람이 Real ID를 발급 받으려면 여권의 이름과 소셜 카드의 이름 등 공식 문서에서 사용 중인 이름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법원에 가서 이름을 공식적으로 정정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Real ID는 선택 사항이지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Real ID는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그리고 연방 정부 관할 지역을 방문할 때 필요한 것이고, 이 때에도 Real ID가 없다면 여권이나 영주권을 지참하면 된다. | 조성운 기자 |

■ 목장 탐방(밸리 8목장)

20년지기부터 갓 만난 목원까지 금방 하나됨 놀라워

이전에 5교구로 불리던 8목장은 배진호 장로님과 배미경 권사님이 목자로 헌신하고 계신다. 20년지기 목원으로 부터 몇달전 처음 만난 목원까지, 직업도 다양각색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싶지만 오래된 친구와 새로 만난 사람의 경계없이 하나라 해도 반론한 사람이 없을 것 같다.



2부예배 후 모임이 강화되면서 항상 1부 예배를 드리는 목원들이 약간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나 걱정스러운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인해 더욱 열심을 내어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목원 모두의 열심이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식사당번이 돌아오면 이렇게 저렇게 모든 목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일 아침 일찍부터 모든 예배가 끝나고 교회 청소가 끝나도록 함께 수고를 거둔다. 더욱 돈독해지는 관계과 마치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듯도 하다. 세상 어떤 모임이 이렇게 속도감있게 서로를 알아가고 또 기도 한자락을 건넬 마음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다. 목원의 어려움에 같이

내어 보여도 그 허물을 허물로 여겨주지 않고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해줄 목원들이라는 깊은 신뢰가 빠르게 형성된 것도 목장님을 포함란 모든 목원들의 열린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한동안 오렌지기들로 이 보다 더 좋은 수 없는 구역모임을 갖고 있었던 5교구가 8목장이 되면서 새로운 식구들로 배가를 이루면서 하여 친구멤버가 이질감이 아닌 새로운 활력소를 얻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 합한 참된 가족이 되어주고 있는 8목장을 자랑하게 되어 감사 또 감사합니다.
| 채은영 기자 |

■ 우리 가족 이야기

God the Provider, I the Servant

Every Sunday during the small group time, my small group teacher asks us for our prayer requests. At that time, I was concerned about my financial situation. I was straight out of high school, without a job. I prayed about it almost everyday and my small group also prayed for me.



Few weeks later when I was offered a job last minute. The ASB President at my high school was recruiting Mandarin Chinese and Korean translators for the company, Kushner & Associates to aid foreigners for a Million Dollar Round Table 2018 event at the Los Angeles Convention Center. I was hired for the job which started the next day. When I received the acceptance email I was speechless. I couldn't believe that in the last minute I got a job. The job paid \$20 an hour and I also got paid over time. In the end, I received about \$992 for 5 days of work.

I was reflecting on how I should use the money I received. I had a wisdom teeth surgery coming up and the estimate price was about \$2,000. I felt burdened and at first decided on using my money to pay for half of my surgery price. However, later on my parents and I both felt that we should not spend the money I earned on the surgery. I talked to my mother and father and asked them if I could give my first wage to God. My parents were surprised because they were thinking the same thing. At that moment, our family knew that it was the Holy Spirit guiding us to this one heart.

Without God's providence I wouldn't be where I am today. I was happy to receive this money but I felt that I should offer all the money I earned at my first job to God. Without God's guidance I wouldn't have gotten this job opportunity.

So last Sunday I wrote a check of \$1000 to offer to God. I was reminded of how Abel gave God the firstborn of his flock and how he gave God not only the firstborn but his heart. "and Abel also brought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and of their fat portions. And the Lord had regard for Abel and his offering," Genesis4:4 While I gave my offering I asked God to use me to glorify Him. I felt humbled by this experience and was also thankful because my parents also felt that I should offer all my first wages to God. As God provides, I as His servant, give Him all the glory.
Yehju Park

첫 열매를 하나님께

고등학교를 졸업한 예수가 일자리를 위해 기도하던중 학교 교감선생님의 일자리 소개 이메일을 출근 하루 전 날 받고 회사에 신청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일하게 되었다. 예수 생애 처음 갖게 된 일은 보험 회사에서 준비한 이벤트에 참석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 중에 중국인과 한국인들을 안내하며 통역하는 일이었다.

아침 7시까지 엘에이 컨벤션 센터까지 데려다 주면서 달리는 차안에서 "예수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는 맡은 일을 행복하게 감당해라." 하고 축복기도를 해 주었다. 마침 사랑을 뽑아야 했는데 회사에서 받는 일당으로 사랑니 뽑는 값의 반을 예수보고 내라고 했다.

첫 날, 일을 마치고 돌아 온 예수가 가족을 위해 매일 새벽부터 수고하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그날 밤,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사랑니 뽑는 비용은 우리가 내주고, 예수가 첫 직장에서 받는 5일간의 일당은 십의 일조가 아닌 십의 십조 전부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했다. 이틀 날 아침 예수를 데려다 주면서 엄마가 받은 감동을 이야기 했더니, 자기도 그런 감동을 받았더라며 순종하겠다는 예수가 너무 기뻐했다. 그 날 저녁, 남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빠가 사랑니 뽑는 비용을 줄테니 예수가 받는 일당 전부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냐고 물어보는 순간, 우리 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음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일주일 후 예수은행에 텍스 제하고 992불이 입금되었고 거기서 모자란 8불을 채워 1000불 모두를 첫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

18년동안 예수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생애 처음으로 땀흘려 일해 받은 첫 열매 전부를 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첫 열매를 통하여 예수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확실히 들어나 하나님만 영광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 박경숙 권사(MP) |



사회보장제도 궁금증 물어보세요(4)

Calfresh

〈푸드스탬프 신청자격과 방법〉

노재덕 집사
(SSA 근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복지 혜택 중 하나 인 Calfresh 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Food Stamps 라고 알려져 있던 이 Calfresh 혜택은 일반 현금 보조 프로그램과는 달리 신청하기가 수월하고 첨부해야 하는 서류도 간편할 뿐 아니라 한인 마켓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grocery market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용한 혜택의 정부 보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리어졌던 Food Stamps 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는 이 혜택이 승인되면 매달 우표같은 모양의 각각 다른 액수의 전표를 나와서 음식을 구입한 후 이를 지불시 이 전표를 그 액수에 맞게 잘라서 지불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연히 이들을 지불시 시간이 지체되고 Welfare수혜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여러가지 불편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EBT (Electronic Benefit Transfer)카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통상으로 우리가 쓰는 credit card와 같은 모양과 크기의 이 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식품을 지불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달 승인된 액수의 혜택이 이 카드에 자동적으로 입금 됩니다.

이 Calfresh 혜택은 미국 농산부에서 관리하며 각 주마다 부르는 그 이름은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 에서는 Calfresh부르고 있으며 통상 거의 미국 전체 주에서 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Calfresh 프로그램은 말씀 드린대로 현금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아니기에 그 과정이 매우 수월하고 많은 증빙 서류들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정부도 가급적 많은 이들이 신청을 하고 혜택을 누리기를 권장합니다. 그 이면에는 이 프로그램이 연방 프로그램이기에 많은 이들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면 연방 정부로부터 거주 정부가 받을 수 있는 budget.이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Calfresh 프로그램을 거주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은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라는 곳으로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다 이 사무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신청하신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나 급한 응급 상황의 경우 3일 안에 처리하는 Expedited Calfresh process 가 있습니다. 이 신속한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의 잔고와 현재 소득 액수가 지불하고 있는 주택비용 (rent나 mortgage)과 utility 비용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즉 갑자기 실직을 하였다던지 주택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아던지 하는 급한 상황이여야 하겠지요.

이 Calfresh 혜택의 신청과 자격 요건 그외 다른 주의 사항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Calfresh 신청자들의 자격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자는 영주권 받고 재정 보증의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재정 보증이 필요없는 category 의 영주권자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정 보증이 있더라도 여러가지 option과 예외가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2) 이 혜택은 신청한 분의 가족 전체의 수입과 식구 수에 따라 혜택 액수가 정해집니다. 만약 가족 중 한 사람이 18세 이상으로써 full time 학생인 경우 그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이지만 일을 하고 있거나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3) 거주에서는 SSI 수혜자일 경우 Calfresh를 신청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는 주마다 규정이 다 다르지만 거주에서 받는 SSI 내에는 이미 식품 구입 보조 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 신청시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ID, social security card, 출생 증명서나 영주권 혹은 여권, 수입 내역서 (paystub, paycheck혹은 고용인의 증명서), rent 혹은 mortgage 확인 서류, utility bill 들입니다. 자동차 서류나 은행 잔고 서류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이 모든 서류들이 준비 되지 않았다 해도 일단 신청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나의 진술만으로 시작 할 수 있으며 어떤 직원도 서류 불충분으로 응급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 하셔서 급한 상황의 경우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Calfresh에 대하여 수입 기준과 혜택 액수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9:30, 2부 11:3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MP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9:3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전 11:3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MP Chapel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주안에” 2018년 8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경숙, 박창신, 박희정, 이광영, 이예스더, 임용재, 조성은, 조용대(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